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 ○

월남해서 서북청년단을 지원해준 사람이 한경직 목사였다면,
조국의 분단을 막기 위해 월북해서 남북협상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자였던 김창준 목사였음
그가 이끌던 단체인 기독교민주동맹이 1947년에 발표한 글임

기독교 본래의 사회정신은 일부 특권 계급의 이익을 두둔하거나 전제와 압박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인민적이며, 평화적이며, 정의감이 곳곳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건지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그가 몸소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정신이 이것을 표증하는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의 기독교는 이조 말기에 있어서 온갖 전제와 압박을 무릅쓰고 대중 계몽과 신 문화 수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일제의 강점하에 있어서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기독교 본래의 사회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이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해방운동의 정신을 우리 기독교인이 몸소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흘린 기독교도의 '피'는 우리 민족해방운동 사상에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 불행하게도 기독교 지도자의 대부분은 기독교 본래의 정신으로부터 속화, 타락하였을 뿐 아니라 특권 계급의 편에 붙어 반인민적 노선을 걷게 되었으며, 특히 중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 전쟁 중에는 신사참배는 물론 내선일체와 황국화 운동에 적극적 정신한 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는 물론 민족해방 사상에 있어서 영원히 씻지 못할 오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강요에 견디지 못하여 한 것과, 자발적으로 한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그 책임은 일부 지도자층에 있는 것이요, 절대 다수의 신도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스러운 8.15 해방을 당하여도 그들 일부 지도자층은 과거를 회개, 근신함이 없이 자신이 의연히 반인민적 노선을 거를 뿐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신도를 오도하고 있음은 실로 통탄사라 아니할 수 없다. 조선은 인구 8할 이상이 경제적 노예, 질곡에서 해매는 참담한 근로대중이요, 우리 기독교도도 그 대부분이 근로인민이 아닌가. 일부 지도자층에 있는 그들은 반 기독교정신인 자기 일개인의 영예와 부귀를 위해서 온갖 부정을 일삼으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반동 특권 계급의 전위가 되어 근로대중에 분격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조선의 오늘의 현상을 살펴볼 때 우리 기독교 신도는 재삼 반성하여서 건국의 옳은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방향이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본래의 사회정신을 재인식하며 동시에 이를 확대하고 강화 향상함에 있다. 신성하여야 할 건국도상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 변절자, 탐욕주의자들이 아무런 회개도 근신도 함이 없이 '애국'과 '독립'의 가면을 쓰고 광란하는 것은 필경 반민족적 반동행위가 아닐 수 없나니 백만 기독교도는 물론 삼천만은 거족적으로 이를 배격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 사회정신은 약자와 빈한자를 위할 것이요, 일부 특권 계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근로인민을 위한 방향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본래의 사회정신과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다. 인민적인 민주주의는 전후 전 세계 약소민족이 한결같이 걸어나가는 방향인 것이다. 우리 조선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 찬 문제의 정당한 해결이라든지 앞으로 영원히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기 위해서라든지 오직 한 길은 이 길 뿐이다. 전 인민을 토대로 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새로운 민주국가의 건설 없이는 기독교도의 생활 보장과 신앙의 자유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정신에서 살고 또 살려는 모든 신도는 당연히 충절기하여 옳은 노선을 걸어야겠다. 관념적인 완고한 주판은 결코 설립되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는 척외도 아니요 사대주의도 아닌 상호평등적인 민주주의 연합국과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완전한 민주독립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현장으로서 보장된 국제평화의 노선인 막부 3상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주의 임시정부 독립에 협력하자. 이에서만 우리 동포가 미증유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흑정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도 구해낼 수 있는 것이다.

만인이 다같이 합할 수 있는 인민적 민주주의 국가건설에 참가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양심적인 사회적 실무를 완수하는 길이다. 우리 기독교 민주동맹은 복음적 신앙에 입각하여 근로인민의 이익을 위함은 물론, 삼천만이 다 잘 살 수 있는 민주 독립국가 창취를 위하여 필기함을 이에 선언한다.

1947년 3월 기독교민주동맹